

‘터프가이’ 조재진

‘밀집 수비’ 뚫어라

남북 축구 월드컵 지역예선 2차전 오늘 격돌

남북 축구 월드컵 본선 길목에서 정면 대결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6일 오후 8시(이하 한국시간) 중국 상하이 흥커우 스타디움에서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조 2차전을 벌인다.
예초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번 경기는 북한이 애국가 연주 및 태극기 게양을 거부해 국제축구연맹(FIFA) 중재까지 가는 우려곡절 끝에 제3국인 중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한국은 지난달 열린 투르크메니스탄과 1차전 홈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뒀고, 북한도 요르단 원정경기에서 1-0로 이겨 산뜻하게 3차 예선을 시작했다.

끝을 넣을 줄 아는 선수지만 우리도 좋은 선수들이 많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라며 의욕을 보여 왔다.
조재진을 받쳐 줄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나시고, 좌·우 윙포워드로 '북한 킬러' 염기훈(울산)과 프리미어리그 설기현(풀럼)이 배치될 공산이 크다.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는 주장 김남일(빛셀 고베)과 조원희(수원)가 다시 호흡을 맞춘다.
유럽과 원백이 가세한 수비는 좌우 풀백에 이영표(토트넘)와 오범석(사마라FC)이 서고, 중앙은 강민수(전북)와 박태휘(전남)가 지키는 포백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수비 치중 5-4-1 시스템

한국, 옴-조-설 스리톱 가동

염기훈-홍영조 프리킥 대결도

이번 남북 대결은 사실상 조 선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물리설 수 없는 한 판이다. FIFA 랭킹 47위의 한국(북한 126위)은 역대 북한을 상대로 5승4무1패로 앞서는 등 객관적 전력에서는 북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남북대결은 늘 전력 외 변수가 많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한국은 지난달 중국 충칭에서 열린 2008 동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10명이 싸운 상대와 1-1로 비기는 등 최근 북한전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에서 허정무는 조재진(전북)을 최전방에 세운 스리톱 공격라인을 가동하고, 북한은 주포 정대세(가와사키 프론타레)를 원톱으로 선발로 내세워 맞붙을 농을 가능성이 크다. 스리백을 구사하는 북한이 사실상 5-4-1 포메이션에 가깝게 수비에 치중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술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 밀집 수비를 뚫을 공격수로는 조재진이 제격이다.
북한과 대결은 처음으로 조재진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상대 공격수 정대세에 대해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 많고, K-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용대(광주)가 지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대세가 고군분투했던 지난달 동아시아 선수권대회와 달리 북한은 세르비아 리그에 진출한 홍영조(베자니아 베오그라드)가 가세해 공격 라인에 힘을 보탤다.
프리킥이 일품인 홍영조는 요르단과 1차전 결승골을 터트리는 등 북한축구의 대표적인 공격수로, 태극전사들도 그의 합류를 경계해 왔다. 정대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다. 동아시아선수권대회 한국전에서 후반 동점골을 넣었던 정대세는 지난 24일 상하이에 도착한 뒤 "나를 키워준 조선의 승리를 위해 혼과 힘을 다하고, 인생을 걸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정대세에 ‘뜨거운 관심’

FIFA 홈페이지 인터뷰 특집 게재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축구대표팀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정대세(24·가와사키 프론타레)와 인터뷰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 다.
일본 스포츠 일간 '스포츠히치'는 25일 FIFA가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모두 4개국 언어로 번역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코너에 정대세 인터뷰를 실는다고 전했다.
FIFA는 예초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3차 예선 남북대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었지만 FIFA 관계자는 "정대세와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 다른 기사에 매몰되기에는 아까웠다"고 특집으로 다루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달 열린 2008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 득점력을 과시한 정대세를 FIFA가 주목하기 시작한 셈이다.
재일교포 3세 정대세는 동아시아 대회에서 일본과 첫 경기(1-1 무승부) 선제골에 이어 한국(1-1 무승부)을 상대로도 동점골을 뽑아 박주영(서울), 염기훈(울산) 등과 함께 공동 득점상을 받았다.
정대세는 24일 오후 결전지인 상하이에 도착, 북한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나를 키워준 것은 조선이다. 내 혼과 힘을 다하고 인생을 걸어 꼭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진

“결과에 만족하고 치료 전념할 터”

세계선수권 2년 연속 ‘동 피겨여왕’ 김연아 귀국

앙드레 김 ‘의상 만들어주고 싶다’



‘진통제 투혼’ 속에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2년 연속 동메달의 영광을 차지한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부상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연아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도 부상 때문에 힘든 경기를 치렀다”며 “지난해 여름 동안 열심히 훈련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부상으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상에 비하면 만족스런 결과”라며 “이제 지난 일인 만큼 편안하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아는 “부상에 비하면 만족스런 결과”라며 “이제 지난 일인 만큼 편안하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아는 “부상에 비하면 만족스런 결과”라며 “이제 지난 일인 만큼 편안하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료를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7-2008 시즌을 마친 소감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푹 쉬었으면 좋겠다”며 “다음 시즌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변화를 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에 김연아를 마중 나온 앙드레 김은 “평소에도 연아의 의상을 유심히 보고 있다. 언제라도 의상을 맡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피겨 의상은 패션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인 면도 조화를 이뤄야 하는 작업”이라며 “아름답고 환상적인 의상을 언제라도 만들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함평 나비·곤충 엑스포’ 성공 기원
함평다이너스티CC 빅 이벤트 마련



입장티켓 지참금 1만원 할인

○호남지역 최초의 세계적 양산디 골프장인 함평다이너스티CC는 다음달 18~6월 1일까지 45일간 열리는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함평다이너스티CC는 엑스포 기간중 엑스포 행사장 입장 티켓을 지참한 내장객에게 주중, 주말 관계없이 1인당 그린피 1만원을 할인해주고, 4월1일부터 주민등록상 함평군민에게는 주중 준회원대우의 그린피를 적용한다.
또한 엑스포 기간중 외국인 및 외지 관광객을 위해 코스내 2곳에 투호 및 윷놀이 마당을 설치, 라온딩중 민속놀이 줄길 수 있으며 아일랜드 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전통 원두막 및 솟대 등을 설치해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이외에 ‘2008 함평 세계·나비 곤충엑스포’ 입장권 1천매를 구입해 VIP회원들에게 2매씩 발송, 엑스포가 성황리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함평다이너스티CC의 레스토랑이 함평군이 지정하는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으로 지정돼 엑스포 기간중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에서는 함평다이너스티CC를 ‘전남도 우수관광 기념품 판매소’로 지정해 엑스포 기간중 전남도 특산물과 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파인힐스 대나무공원 조성

○ 파인힐스CC는 최근 고로쇠 시음행사, 봄이 불청객 황사마스크, 화이팅데이 이벤트 사탕 등 무료서비스를 통해 내장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파인힐스CC는 또한 클럽하우스 정문 진입로 주변에 대나무숲을 연상케 하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나무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파인힐스CC는 오는 5월 파인힐스 회원과 회원가족, 지역주민을 위해 골프장 잔디위에서 그린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3차 정회원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주중회원 개인 3천만원, 가족 5천만원에 모집중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형택 세계랭킹 48위...4계단 상승

이형택(32·삼성증권)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에서 48위로 뛰어올랐다.
25일(이하 한국시간) ATP가 발표한 새 랭킹에 따르면 이형택은 지난 주 끝난 피시픽 라이프오픈에서 16강에 오르며 랭킹 포인트 75점을 보태 52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
2월19일자 순위까지 47위를 달리다 2월 26일자로 50위로 밀려났던 이형택은 이로써 1개월만에 다시 50위권 내에 진입하게 됐다.

이형택의 개인 최고 순위는 2007년 8월 초에 36위까지 오른 것이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는 피시픽 라이프오픈 4강에서 탈락했지만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격차를 350점에서 845점으로 벌렸다.
한편 이형택은 27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소니 에릭슨오픈(총상금 377만달러) 단식 1회전에서 두디 셀라(60위·이스라엘)와 맞붙게 됐다. 아직 셀라와 싸운 적이 없는 이형택은 이길 경우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토미 로르데도(14위·스페인)와 만난다.

여자핸드볼 프랑스행
올림픽 최종예선 출전

2008 베이징올림픽을 향한 마지막 관문에 도전하는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25일 출국했다.
임영철(백산건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9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남부 남에서 열리는 국제핸드볼연맹(IHF) 최종 예선에 출전하기 위해 이날 낮 프랑스로 떠났다.
대표팀은 파리에서 비행기를 한 번 갈아타고 몽펠리에로 이동한 뒤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남으로 이동한다. 이날 출국한 선수는 국내파 9명에 일본에서 뛰고 있는 홍정호(오르몽)까지 총 10명. 유럽파인 오성욱, 김차연, 명복희(이상 오스트리아 히포), 허순영, 최인정(이상 덴

마크 오르후스), 우선희(투마니아 브라소프) 등 6명은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최종 예선은 말 그대로 마지막이다. 프랑스, 콩고, 코트디부아르와 함께 C조에 속한 한국은 풀리트를 치러 최소한 2위를 차지해야 베이징에 갈 수 있다. 이번 말고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최저 '특별리 회원권'이 샵퍼티스에서 월드컵 경기장 및 모아레도트하우스로 확장·이전 예정입니다.
승수에 맞춰만 대한민국 최고의 거액수가 되겠습니다.
정리문의 (062)351-0095